

불교와 미학

부처님의 손짓, 수인

부처님이 보이신 손짓, 그 뜻 알 수 있을까

2500여 년 전 인도 영축산.

산 정상에 오르신 부처님은 말없이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이어서 제자들이 제각기 그의 주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뒤따라온 하늘의 신들과 선남선녀들이 하나둘씩 제자들 뒤에 자리를 잡고 앉기 시작했다. 곧 좌중이 정돈되자, 대중들은 세존의 말씀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따라 세존께서는 가만히 좌중을 둘러 보시고는 묵묵히 계시 뿐이었다. 이윽고 대법천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꽃을 바치며 세존께 법문을 들려 주시기를 청하였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대법천왕이 바친 연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여주셨다. 그의 영민하고 뛰어난 제자들도, 전 우주를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진 하늘의 왕들도, 신앙심 깊은 선남선녀들도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이신 뜻을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멀뚱멀뚱 서로 돌아보며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이때 멀찍이 대중 속에 자리 잡고 앉아 있던 가섭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이 있으니 이제 가섭에게 맡기노라.”

이 날, 두 사람이 나눈 미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고 연꽃을 들어 보이신 부처님의 몸짓은 불법의 몸짓이 되었다.



선운사 비로자나불(사진 왼쪽)과 석굴암 본존불인 석가모니불(사진 오른쪽). 비로자나불의 수인은 '지권인'이며 석가모니불의 수인은 '함마촉지인'이다. 부처님의 몸짓인 수인은 진리의 방편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불상을 구별하는 피상적 지식이 아닌 진의를 알아야 한다.



불상 마다 맺어진 수인들

명호를 알게 한 단초로 활용

피상적 지식만... 진의는 몰라

모든 수인, 본질 표현의 몸짓

부처님의 자비와 방편을 의미

'염화미소' 진리, 수인에 담겨

불교에는 수많은 종류의 불상이 있다. 탄생으로부터 열반까지 부처님 일생의 중요한 순간을 형상화한 것은 물론이고, 석가모니불을 비롯하여 아미타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상을 바라보며 종종 “저 불상은 어떤 부처님일까?”라고 궁금해 한다.

어떻게 많고 많은 불상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을까? 비스듬히 누워 한쪽 손으로 머리를 괴고 있는 불상이 있다면 그것은 열반상이다. 그런가하면 한손으로 위로 하늘을, 다른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서 있는 불상이 있다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탄생불(誕生佛)이다. 사이즈도 작고 주로 법요식 때 관불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유아독존(天天下唯我獨尊)”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 자세이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불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불상은 연화좌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았는 모습이다. 그것은 모든 불상이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눈썹을 살짝 감고 조금의 미동도 없이 정좌하고 있는 저 부동의 몸과 적멸의 얼굴에서 어떤 차이를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불상의 손짓, 즉 수인을 마치 주된등록증이나 되는 것처럼 불상들을 변별하는 기호체계로 알려져 있다. 선정에 든 부동의 몸이 모든 불상의 공통된 근거라면, 몸의 움직임, 즉 몸짓은 각 불상에 고유한 어떤 상태를 알려주는 표지와 같다. 특히 손의 동작은 너무나 다양해서, 열 손가락으로 것처럼 많은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움까지 하다.

먼저, 왼손 집게손가락을 펴서 오른손으로 감싸 쥐

이 선정인을 취한 도상도 종종 보인다. 그렇다면 하나의 수인이 반드시 하나의 불상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인을 불상을 변별하는 기호로 여기는 방법은 적절하지 못한 이해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손짓, 곧 수인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옛날 데바다타의 모락으로 술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을 해치려고 돌진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부처님은 가만히 서서 오른손을 번쩍 들어 손바닥을 활짝 폈다. 순간 그 기세에 놀려 코끼리가 멈추어 섰다. 그 저 손바닥을 펴서 들었을 뿐인데 사나운 코끼리가 멈춘 것이다. 이후로 이 손짓은 모든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신바나 힘을 가진 도장, 시무외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 동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몸짓이지만 그 몸짓을 한다고 모두 코끼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이기에 가능한 일, 두려움이 없는 부처님의 경지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몸짓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인은 부처의 본질을 이루는 몸짓이다. 그래서 이 몸짓을 수인(手印) 또는 무드라(Mudra)라고 한다. 수행자가 수인을 맺으면 불보살의 힘을 느끼고 수용할 뿐 아니라 그것과 일체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결인(結印)이라고도 한다. 무외인, 촉지인, 선정인 뿐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들고 있는 연꽃이나 문수사리의 칼, 염마왕의 인두창 같은 구체적인 기물까지도 모두 깨달음의 경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는 중국불교의 체용 논리를 몸과 몸짓의 관계로 해석한 박성배 선생의 해석을 빌려, 불상의 몸을 부동의 깨달음, 적정삼매 그 불멸의 깨달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매년 다르게 표현되는 몸짓(손짓)을 부처님의 자비와 방편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두려움을 없애주며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부처님의 자비 대응이 열 손가락으로 표현된 것, 다시 말해 수인은 자비의 시현우주를 아우르고 모든 생명을 거두는 다함없는 부처님의 자비가 현현되고 구체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탄트라불교 전통에서는 심지어 왼손은 지(止)를, 오른손은 관(觀)을, 또는 정(定)과 혜(慧), 권(權)과 실(實), 자(慈)와 비(悲)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손짓이 그와 같은 깊은 정신적 경지를 구현하는가? 얼굴을 제외하고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정신적인 부분이 바로 손이다. 어느 연구자가 지적했듯이 손이 가는 곳에 시선이 따라가고, 시선이 가는 곳에 정신이 향하게 되며, 정신이 머무는 곳에 영혼의 상태가 드러난다. 흥미롭게도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의 묘사에 집중했던 중국 전통과 달리, 인도 전통에서는 손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지금 당장 합장을 해보라. 손바닥을 마주 대하고 시선을 그곳에 모으면 이미 마음이 하나가 된다. 아주 단순한 동작에도 마음이 깃들게 마련이다. 합장한 손은 저절로 신체의 중심축에 놓이고 그곳에 충만해지는 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합장 하나만으로 몸과 마음을 교묘하게 만들 수 있다.

인도인에게 몸은 수행에 있어 방해물이 아니라 탁월한 통찰과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편이었다. 인간의 몸은 신을 현현하는 그릇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몸짓, 곧 수인은 종교적 경험을 강화하는 제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나아가 사바교와 탄트라불교에서는 강력한 주술적 힘을 발휘하며 깊은 선정의 상태를 표시하는 징표로 이해되었다. 탄트라불교에서는 ‘삼밀상응 즉신성불(三密相應 即身成佛)’이라는 교의에 따라 수인은 삼밀(三密), 다시 말해 몸으로는 수인을 짓고 입으로는 다라니(陀羅尼)를 외우며 마음으로 삼매(三昧)에 드는 비밀한 수행법의 하나로 실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에서 몸짓은 일종의 언어로서 기능을 하였다. 인도 전통춤에는 108가지의 몸짓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는데 모두 인간이 느끼는 모든 희로애락을 표현하며 신성한 의미를 표현한다고 믿어졌다. 그것은 수화처럼 정확하게 세밀한 기호체계이며 브라흐만 계층과 상류층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상징체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모든 면모를 무한하게 표현하며 신성한 근원을 현시하는 신적인 것의 현현이라고 이해되었다.

밀란 쿤데라는 그의 소설 <불멸>에서 ‘불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불멸을, 그는 소설에서 아네스가 고개를 돌리며 손을 들어 올리는 몸짓처럼 어떤 사람의 독특한 몸짓이 누군가의 기억에 새겨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불멸의 존재가 된다고 말한다.

“그 몸짓 덕분에,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그녀 매력의 정수가, 그 촛각의 공간에 모습을 드러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러나 몸은 사라지고 몸짓만 기억된다면, 밀란 쿤데라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고 키치가 빛어낸 이미지들이 지배하는 이마콜로지(imagology)의 시대라고 명명했듯이, 우리는 불상의 수인을 알았다고 만족하며 떠나는 사람들처럼 부처님의 몸짓으로 그 몸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원본이 없는 이미지들만 남아 부유하는 이 시대에 ‘세존이 꽃을 들어 가섭이 미소를 지은 뜻’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사리)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에서는 범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 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범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범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 x 29cm)



3x6사군자 (7.4 x 14.5cm) 3x6식물성사군자 3x6연꽃나비A 3x6연꽃나비B



한복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래전사자 / 원기동전사자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 x 29cm)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삭아광연봉연꽃양초 / 약삭1호예술연꽃양초 / 아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